

화순군 도로 편입 사유지 사들여 통행권 분쟁 없앤다

소유권 변경으로 재산권-통행권 충돌 민원 발생 부지 대상을 2억여원 예산 편성... 이달 중 읍·사무소 보상 신청 접수

마을 주민들이 통행하는 길을 두고 사유지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화순군이 주민 통행권과 재산권 보장을 위해 일부 토지를 사들이기로 했다. 화순군은 올해 2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해 마을 통행권 분쟁 등을 일으키는 일부 사유지를 한시적으로 매수하는 시범사업을 펼친다고 22일 밝혔다. 매수 대상 토지는 마을 안길에 있으면서 신설 또는 변경 고시가 되지 않은 현행도로 등이다.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고, 다음 달 보상 여부를 결정할

의미를 연다. 해당 토지들은 일제강점기, 6·25전쟁, 1970년 새마을사업과 맞물려 지적공부 등을 정리하지 않고 마을에서 주민들 상호 협의로 안길 등을 정비해 오랫동안 주민 통행에 쓰여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매, 매매, 상속 등에 의해 토지 소유권자가 변경되면서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주민 통행권 간의 분쟁이 심해지고 있다. 토지 소유주가 재산권 행사를 위해 안길을 폐쇄하면

서 각종 민원과 갈등이 빚어지고 기반시설 정비가 늦춰지고 있다. 그동안 진입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안길 기반시설에 대한 명확한 보상 근거가 없어 화순군은 주도적으로 분쟁 해결에 나서지 못했다. 이때문에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주민 통행권이 충돌하며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이 심해졌다. 화순군은 올해 예산에 2억여원을 편성해 마을 안길 등의 사유지 일부에 대해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시범사업에 앞서 화순군은 담양군의 '새마을도로 편입토지 보상' 사업과 서울시의 관련 조례, 인천 강화군 사례 등을 검토했다.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 반응과 수요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화순군은 사유지 분쟁에 따른 2건의 시설물 철거토지 인도 청구,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무분별한 보상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순군 공공시설 편입용지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성, 소송,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특히 화순군이 새로 발주한 관급공사로 사유지에 지하 매설물 등을 설치한 건물과 민사소송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건물 등을 우선으로 추진한다. 일반공중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사유지 보상은 토지 소유자가 이달 중 읍·사무소에 보상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화순군은 읍·면과 함께 사실 조사를

하고 보상심의, 보상액 산정, 보상 협의, 계약체결, 소유권이전등기, 보상금 지급의 절차를 진행한다. 화순군은 군 공공시설 편입용지 보상심의위원회에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를 위촉해 구성할 계획이다. 오는 6월에 위원회를 개최해 7월부터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등 보상 절차를 진행한다. 김도연 화순군 건설과 지역개발팀장은 "마을 하수도 설치 때 사용자 지불 문제 등 사유지를 둘러싼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마을 안길 사유지 매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며 "마을 통행권과 주민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지난 19일 개막한 장성 황룡강 홍길동무 꽃길축제에 관람객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장성군 제공>

100억송이 봄꽃...장성 황룡강 꽃길축제 '장사진 인파'

사흘간 12만8500여명 찾아

100억송이 꽃길이 펼쳐진 장성 황룡강 홍(洪)길동무 꽃길축제가 봄 축제 명성을 재확인했다.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화려한 시작을 알린 장성 황룡강 홍길동무 꽃길축제가 사흘간 약 12만 8500여 명의 관람객이 장성을 찾았다. 개막식이 열린 19일 3만3000여 명이 시작으로 20·21일엔 9만5500여 명이 황룡강과 홍길동 테마파크를 찾았다. 꽃양귀비·수레국화 등 황룡강 12리 길에 피어난 100억 송이 봄꽃을 감상하려는 발길이 줄을 이었다.

남진, 장민호 등이 출연한 개막식 축하무대도 큰 호응을 얻었다. 문화대학교 미디어 조명과 음악과 야간조명, 플라워 터널로 이어지는 명품 야경 코스는 늦은 시간까지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장성 맛집들이 참여한 향토식당과 푸드트럭, 농특산물 판매장터도 문전성시를 이뤘다. 남도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남도음식문화 토크쇼'와 '남도국악제' 등 특색 있는 지역 콘텐츠도 주목받았다. 열기구·수상 자전거·전동열차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와 봄밤을 수놓은 불꽃놀이로 축제의 낭만과

재미를 더했다는 평을 얻었다. 황룡강과 동시에 축제가 진행된 홍길동 테마파크도 사흘간 65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활기를 띠었다. 장성군은 축제 종료 이후에도 봄꽃이 절정을 이루는 오는 29일까지 나들이객 맞이 기간을 운영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일상에 지친 이들을 위로하고, 행복한 시간을 선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꽃 단지를 가꾸고 축제를 정성껏 준비했다"면서 "나들이객 맞이 기간에도 황룡강 100억 송이 봄꽃과 아름다운 야경을 만끽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함평군 원자력교부세 신설 3주간 2500명 서명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 촉구 운동

함평군은 이달 1일부터 벌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운동을 위한 서명 운동에 3주 동안 2500여 명이 동참했다고 22일 밝혔다. 함평과 장성, 무안, 전북 부안, 고창 등 전국 원전 인근 23개 자치단체는 오는 7월 말까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한 100만 주민 서명 운동을 함께 벌이기로 했다. 함평군은 석 달 동안 9000명 서명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반경 30km 인근에 있는 23개 시·군·구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수십 년째 작·간접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으나, 방사능 방재와 안전관리 등 정부의 주민 보호와 지원사업은 미미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원전 인근 23개 시·군·구는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김영길·울산 중구청장)을 맺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안전교부세는 방사능으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보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쓰인다. 박성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울산 중구)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를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3개



이상의 함평군수가 22일 군수실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한 소셜미디어 운동을 하고 있다.

지자체에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최근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한중 장성군수의 지목을 받아 22일 소셜미디어(SNS) 서명 운동에 동참했다. 다음 주자로는 김산 무안군수, 이개호·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추천했다. 이상의 군수는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방사능 방재 등 주민 보호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경 기자 hsy@kwangju.co.kr



연말까지 화순 개미산에 건립될 전망대 조감도.

<화순군 제공>

화순군 개미산 전망대 연말까지 건립

건축 설계 공모 '다시, 봄' 당선

화순군이 화순을 연양리 개미산에 전망대를 연말까지 건립해 관광 명소로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화순군은 최근 '개미산 전망대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개미산 전망대 조성을 위한 밀그림을 완성했다. 개미산 전망대는 19m 높이로 지어질 계획이며, 카페 등이 들어선다. 건축 용역에는 1억54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다. 화순 개미산은 기미년 만세운동의 상징적인 공간이다.

화순군이 벌인 건축 설계 공모 당선작은 '다시, 봄'(RE:BOM)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 전망대 주변에는 산책로를 조성해 관광 수요를 맞출 방침이다. 개미산 전망대가 조성되면 인근 복자·문화스포츠센터와 화순천 음악 분수대, 꽃길길 등과 연계한 관광 명소가 탄생할 것으로 화순군은 기대하고 있다. 용역 보고회에 참석한 구복규 화순군수는 "화순천과 숲이 어우러진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미산 전망대가 화순군을 넘어 전남의 대표적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강진군 공공 배달앱 '떡깨비' 매출 3억원 돌파

지난해 7월 도입...1만2324건 결제

강진군은 지역 공공 배달 앱 '떡깨비'를 지난해 7월 도입한 이후 누적 결제 금액이 3억원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결제 건수는 1만2324건으로 집계됐다. 공공 배달 앱은 상인들이 국내 최저 수준인 1.5%의 중계 수수료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다. 민간 배달 앱이 받는 중계 수수료율은 6.8%에서 높게는 15%에 이른다. 공공 배달 앱은 별도 입점 비용이나 광고료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떡깨비는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제로페이)으로 결제할 수 있다. 강진사랑상품권의 할인율 10%와 강진군이 제공하는 할인권 등을 이용하며

할인 혜택은 더 커진다. 강진지역에서 공공 배달 앱을 사용하는 상점은 이달 현재 144곳이다. 공공 배달 앱을 사용하는 전남 시·군 가운데 지난 14일 기준 강진은 여수, 순천, 무안, 목포, 광양, 나주에 이어 매출 7위를 기록했다. 강진군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매주 주말 공공 배달 앱 떡깨비로 주문하는 이용객에게 배달비 할인권을 지급한다. 매주 토요일엔 1만5000원 이상 주문하면 배달비 3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가맹점 할인권도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다. 떡깨비 가맹점 신청은 떡깨비 홈페이지(boss.mukkebi.com)나 고객센터(1644-7817)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나주 빗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주민 어울림 한마당

25일 공공기관 동아리 콘서트

나주 빗가람 혁신도시(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과 주민들이 어우러진 행사가 오는 25일 열린다. 이날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나주 빗가람호수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16회 이전 공공기관 동아리 콘서트'가 진행된다. 이 행사는 지난 2016년부터 연중 서너 차례에 걸쳐 열려왔다. 코로나19가 국내 확산한 지난 2020년부터 중단됐다가 4년 만에 다시 열린다. 무대에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5곳의 음악 동아리와 주민, 지역대학 동아리가 오른다. 공공기관 공연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하비스트', 한진KDN '반장꼬', 한국전력 '화북밴드' '윌수밴드', 국립전파연구원 '하모니' 등이 참여한다. 지역연합회 '빗가람잡바'와 동신대학교



나주 빗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동아리 콘서트' 무대에 오른 공공기관 동아리. <나주시 제공>

'TEMPO'도 무대를 꾸민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비누 만들기, 레이저 풍선 터뜨리기, 아트튠블러 등 체험 행사와 베품시장이 마련된다. 당일 비가 오면 행사는 연기된다. 운영태 나주시장은 "일과 이후 틈틈이 갖고 뒤

었던 이전 공공기관, 지역주민, 대학교 동아리팀의 낭만과 흥이 가득한 무대를 즐기면서 일상에 활력이 더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전 공공기관과 지자체, 지역사회 간 소통을 통해 화합, 상생을 위한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강진 '불금불파' 26일 개장...매주 '불고기 파티'

10월까지...다양한 즐길거리도

강진군이 오는 26일 5시 불금불파(불타는 금요일엔 불고기 파티)를 개장식을 개최한다. 강진군의 올해 처음 선보이는 '불금불파'는 맛의 1번지 강진 대표 먹거리인 병영대지 불고기와 관광자원을 연결한 새로운 관광모델로, 이번 개장을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매주 개최된다. 행사장에서는 연탄돼지불고기, 하멜촌맥주, 국

수 등 다양한 먹거리와 토하정, 병영전통주 등 살거리, 전라병영성, 하멜기념관, 병영 한골목 관광투어, 추억의 오락실, EDM 디제이와 함께하는 디스크오 마당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만날 수 있다. 군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행사장 입구 주차장에 승용차 70대 규모와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병영하멜기념관 주변에 텐트촌 20개소, 음수대, 화장실, 샤워장을 구비했다. 강진 불금불파 행사는 26일 개장으로 10월 말까

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열린다. 광주권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운영되는 셔틀버스는 버스 한바퀴 홈페이지(www.kumhoaround.com)에 강진 불금불파로 검색해 예약하면 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관광객 500만 유치를 위해, 금요일은 불금불파를 즐기고, 토요일은 마량 놀토시장에서 보내는 새로운 관광상품을 제공하겠다"며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다양한 축제와 연계해, 강진만의 매력으로 관광객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